

목적어를 수반하는 形動兼類詞의 통사구조 考察

張孝珉*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形容詞와 動詞의 區分
 - III. X+O의 分類
 - 1. X+O의 音節上의 分類
 - 2. X+O의 構造上의 分類
 - 3. X+O의 意味上의 分類
 - IV. X+O의 動因
 - 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언어는 생성과 소멸, 변화를 거듭하는 유기체이다. 언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휘는 어법적인 요소에 비해 한층 더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새로운 개념의 생성과 변화에 따른 신조어의 출현, 혹은 어휘 운용의 대체에 따른 기존 어휘의 소멸 등은 언어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반영한다. 이러한 생성과 소멸이라는 변화 양상 외에도 동일 어휘의 용법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즉 기존 용법에서는 형용사로 분류되던 어휘가 동사로 활용¹⁾되기도 하고, 형용사와 동사의 역할을 겸하는 겸류사²⁾로 분류되기도 하며, 나아가 형용사로서의 용법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1) 黃伯榮·廖序東(2007)에 따르면 어휘의 활용(詞匯活用)이란 특수한 용법의 일종으로 A라는 품사에 속하는 어휘가 표현상 필요에 의해 B라는 품사의 어법적 특징을 임시적으로 띠는 현상을 일컫는다.
- 2) 張靜(1987)에 따르면 겸류사(兼類詞)란 두 품사의 어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뜻한다.

은 소멸되고 동사로 전환되기도 한다. 각 어휘의 품사는 어법적 기능을 기반으로 설정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품사분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는 학습장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어휘의 주된 어법적 기능과 이에 따른 품사분류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의 c와 같이 형용사에 속하지만 형용사가 지닌 전형적인 어법적 기능(목적어 수반 불가, 수식과 서술의 역할, 정도보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중첩 가능)³⁾에 위배되는 구조에 출현하는 어휘를 접한다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 (1)⁴⁾ a. 寬大政策. 관대한 정책. (定語)
 b. 心懷寬大. 마음이 관대하다. (謂語)
 c. 寬大了一個特務分子. 스파이에게 관대하게 대하다. (形+賓)

'形+賓'과 같은 비전형적인 구조에 출현하는 형용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와 같은 어휘의 범주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⁵⁾, '形+賓'의 구조적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現代漢語詞典(第5版)》⁶⁾에 수록된 형용사 중 목적어 수반이 가능한 형용사를 대상으로 '음절수, 형식, 의미' 등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形容詞와 動詞의 區分

'形+賓' 구조에 출현 가능한 형용사를 어떠한 범주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형식, 의미' 등에 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3)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 《應用漢語詞典》: 「很多形容詞不能帶賓語, 可以做謂語, 可以受“很”, “極”等程度副詞修飾, 可以重疊。」(商務印書館, 2000), 1406쪽.
 4) 본고의 예문은 모두 北京大學漢語語言學中心(CCL·語料庫)이 구축한 Corpus에서 발췌했다.
 5) '形+賓' 구조의 형용사에 관한 범주(형용사의 예외적 쓰임, 동사로의 전환, 形動兼類詞, 임시적 활용) 설정은 II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

형용사와 동사는 어법적 특징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 품사 구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특징들을 찾아 그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형용사와 동사를 하나의 부류로 보는 견해로 趙元任(1979)⁷⁾은 형용사를 동사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陳望道(1978)⁸⁾는 동사와 형용사를 동일한 用詞⁹⁾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방법을 따른다면 그 범주가 너무 방대해 품사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교차되는 어법적 특징들이 너무 많아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시적 활용으로 보는 견해로 吳平(2009)¹⁰⁾은 ‘安靜了剛才一場熱鬧, 俏皮他, 尷尬了他倆的關係’와 같은 문장을 형용사가 목적어를 수반한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동사로 임시적 활용된 목적어를 수반한 구조로 여기는데 이렇듯 어법적 특징이 교차할 때마다 활용으로 간주한다면 품사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很’의 수식여부와 목적어 수반여부를 기준으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朱德熙(2004)¹¹⁾는 <표1>을 제시하며 ‘端正學習態度’, ‘寬大了一個特務分子’의 ‘端正’과 ‘寬大’가 목적어를 수반하기 때문에 동사와의 겹류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加‘很’	帶‘賓語’	例詞
1. 及物動詞	+	+	想怕, 愛, 喜歡, 關心, 害怕, 贊成, 同意, 相信, 懷疑, 羨慕
2. 及物動詞	-	+	唱, 念, 看, 切, 殺, 買, 說, 有, 討論, 發展, 分析, 具有

7) 趙元任, 《漢語口語語法》: 「將形容詞劃歸爲動詞一類。」(商務印書館, 1979), 32쪽.
 8) 陳望道, 《文法簡論》: 「動詞和形容詞等合爲用詞。」(上海教育出版社, 1978), 29쪽.
 9) ‘어휘의 사용 혹은 표현’을 뜻한다.
 10) 吳平, 《漢語特殊句式的事件語義分析与計算》(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103쪽 참조.
 11) 朱德熙, 《語法講義》: 「凡受“很”修飾而不能帶賓語的謂詞是形容詞, 凡不受“很”修飾或能帶賓語的謂詞是動詞。」(商務印書館, 2004), 55-57쪽.

3. 不及物動詞	-	-	醒, 歇, 腫, 醉, 咳嗽, 旅行, 讓步, 地震, 遊泳, 休息, 病, 死
4. 形容詞	+	-	大, 紅, 遠, 好, 胖, 累, 困, 乏, 飽, 結實, 幹淨, 發達, 漂亮, 疲倦, 幹淨

〈표1〉

‘葉長蔭(1984), 劉月華(1988), 李泉(1994), 王啓龍(2003), 黃伯榮·廖序東(2007)¹²⁾는 형용사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지만 (2)와 같이 몇몇 이음절 성질형용사 혹은 변화나 狀態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동사와의 검류사로 여겨 목적어 수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때의 형용사를 ‘使動詞’로 간주하며 朱德熙(2004)와 일치된 시각을 보이는 동시에 그 범주를 더 세분화 하였다.

- (2) a. 純潔隊伍。대오를 정열하다. → 使隊伍純潔。
 b. 直著身子。몸을 꼳꼳이 세우다. → 使身子直著。

呂叔湘(1942)¹³⁾ 또한 《普通話三千常用詞表》에 수록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140개의 단음절 형용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①‘歪著腦袋’와 같이 형용사가 사동의 의미를 가질 때. ②‘重政治’와 같이 서술의 의미를 가질 때. ③‘錯了一個字’와 같이 동작의 주체를 목적어로 가질 때. ④‘大你一歲’와 같이 비교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목적어로 가질 때. ⑤‘疼孩子’와 같은 기타류 일 때)에 속하며 이때의 형용사를 동사와의 검류로 보고 그 범주를 더욱 구체화 하였다.

네 번째는 ‘紅了臉, 硬著頭皮’의 ‘紅’과 ‘硬’이 목적어를 수반한다고 해서 동사로 간주한다면 形兼動류의 검류사 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형용사와 동사를 구

12) 葉長蔭, 〈試論能謂形容詞〉, 《北方論叢》, 1984.

劉月華,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教育書株式會社, 1988.

李泉, 〈現代漢語“形+賓”現象考察〉, 《中國人民大學學報第(第4期)》, 1994.

王啓龍, 《現代漢語形容詞計量研究》,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3.

黃伯榮·廖序東, 《現代漢語》, 北京高等教育出版社, 2007.

13) 呂叔湘, 《現代中國語文法》: 「把形容詞帶賓語的情況歸納爲五種: ①形容詞爲使動意義, 如“歪著腦袋”; ②形容詞爲意謂的意義, 如“重政治”; ③以“施事”爲賓語, 如“錯了一個字”; ④以用來比較的人或物爲賓語, 如“大你一歲”; ⑤別的例子, 如“疼孩子”, 這裏的形容詞應該說是已經變成動詞了。」(商務印書館, 1942), 32-33쪽.

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형용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다.¹⁴⁾ 陸志韋(1951)¹⁵⁾ 또한 ‘他紅了臉’의 ‘紅’은 동사의 자리에 위치해 마치 동사와 같이 여겨지지만 이러한 문장을 ‘紅臉, 紅花’과 같이 ‘紅N’으로 전환하여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에 ‘紅’을 형용사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류사로 보는 견해와는 다른 결론을 제시하였다.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 형용사를 동사의 한 부류로 보는 견해, 두 품사가 교차되는 어법적 특징을 가질 때 이를 임시적인 활용으로 보는 견해, 어법적 특징을 제시하며 각 특징의 부합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 예외적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데 있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呂叔湘(1942)이 제시한 것과 같이 일정한 조건하에 형용사가 목적어를 수반할 경우 이를 동사와의 검류로 보는 세 번째 견해를 따르고 이와 같은 구조를 X+O¹⁶⁾로 표시하고자 한다.

Ⅲ. X+O의 分類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현상에 관한 나열만 있을 뿐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목적어 수반이 가능한 X의 종류와 의미, X+O구조의 유형’ 등에 관한 다양한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쓰임에 관해 알아보고 X+O구조가 속해있는 문장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1. X+O의 音節上의 分類

《現代漢語詞典(第5版)》에 수록된 2600개의 형용사중 단음절 형용사는 총 312

14) 範曉, 〈關於形容詞帶賓語問題〉, 《漢語學習(第5期)》, 1983, 5쪽 참조.

15) 陸志韋, 《北京話單音詞詞彙》, 人民出版社, 1951, 59쪽 참조.

16) ‘形動兼類詞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통사구조를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形動兼類詞를 X로, 목적어를 O로 표기한다.

개이며 이 중 (3)과 같이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단음절 X는 152개¹⁷⁾로 48.7%를 차지한다.

- (3) a. “幹嘛這麼苦自己呀?” 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해?
 b. 巴基斯坦表示不會向綁架分子低頭。
 파키스탄은 납치범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c. 有時結果可能相當驚人。때로는 그 결과가 좀 놀라울 수도 있다.

이음절 형용사는 총 2282개며 이 중 (4)와 같이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X는 118개¹⁸⁾로 5.2%를 차지한다. 나머지 6개의 다음절 형용사(不得了, 不得已, 差不多, 好好兒, 好玩兒, 一系列)는 목적어 수반이 불가능하기에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7) ‘劉光婷〈現代漢語形容詞帶賓語情況考察〉,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에서는 다음의 141개 (安, 暗, 矮, 白, 板, 薄, 飽, 扁, 殘, 差, 長, 沉, 遲, 赤, 臭, 粗, 錯, 火, 淡, 低, 刁, 定, 短, 對, 多, 煩, 反, 淝, 廢, 富, 幹, 高, 夠, 光, 責, 寒, 好, 黑, 狠, 橫, 紅, 厚, 花, 壞, 緩, 慌, 黃, 灰, 活, 火, 急, 擠, 尖, 健, 賤, 緊, 近, 靜, 淨, 苦, 寬, 爽, 辣, 爛, 老, 累, 冷, 涼, 亮, 綠, 亂, 聾, 麻, 滿, 慢, 忙, 美, 悶, 難, 暖, 胖, 偏, 破, 淺, 輕, 清, 窮, 埂, 罇, 空, 癩, 晴, 熱, 嘶, 澀, 傻, 曬, 少, 深, 實, 濕, 瘦, 松, 酥, 碎, 燙, 禿, 歪, 彎, 晚, 穩, 細, 小, 瞎, 斜, 豎, 順, 鐵, 痛, 蓬, 屈, 溫, 啞, 陰, 硬, 遠, 冤, 遵, 髒, 早, 整, 正, 直, 重, 牡, 紫, 皺, 豐, 寧, 昏, 快)를 제시했지만 재검토 결과 ‘癩’와 ‘遵’는 동사에 속하기에 제외시키고 13개(吵, 滑, 嬌, 樂, 鬧, 僵, 貴, 肥, 餓, 膩, 平, 壯, 暈)의 형용사 또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기에 이를 포함시켜 총 152개의 단음절 X를 본고의 분석 자료로 삼는다.
- 18) 劉光婷(2008)은 다음의 87개 (安定, 暗淡, 肮髒, 燦爛, 蒼白, 暢通, 刺激, 遲緩, 赤裸, 成熟, 充實, 純潔, 純淨, 純正, 淡薄, 淡漠, 端正, 動搖, 繁榮, 方便, 分散, 豐富, 富強, 固定, 光赤, 公開, 鞏固, 孤立, 規範, 含糊, 合法, 歡樂, 緩和, 活躍, 混淆, 激動, 堅定, 堅固, 簡便, 簡練, 健全, 精確, 開闊, 肯定, 快樂, 冷淡, 麻煩, 密切, 明確, 滿足, 模糊, 暖和, 便宜, 平淡, 平衡, 平緩, 平均, 破爛, 窮盡, 熱鬧, 柔和, 濕潤, 舒展, 疏散, 疏遠, 疏松, 統一, 彎曲, 完善, 委屈, 溫暖, 穩定, 協調, 興奮, 嚴格, 陰沉, 震驚, 壯大, 清醒, 激動, 寬大, 寬容, 集中, 辛苦, 幸福, 突出, 悲傷)를 제시했지만 재검토 결과 31개(保准, 不善, 不足, 超前, 菲薄, 高興, 可憐, 明白, 平服, 討厭, 投機, 爲難, 便利, 發達, 感動, 規範, 勉強, 模糊, 清心, 確定, 穩固, 嚴密, 嚴肅, 奇怪, 稀罕, 親熱, 了當, 坦白, 冷落, 惱怒, 困惑, 殘虐, 浮泛)의 형용사도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기에 총 118개의 이음절 X를 본고의 분석 자료로 삼는다.

- (4) a. 吃頓飯也許會緩和氣氛。
 식사를 하는 것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b. 鞏固國防。國防을 튼튼히 하다.
 c. 從設計開始就要本著以人爲本, 方便群衆的思路來進行。
 설계를 시작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이음절 X가 단음절 X에 비해 그 수가 많다고 주장한 몇몇 학자들의 의견¹⁹⁾과는 달리 단음절 X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X+O가 가능한 X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한 단어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품사를 겸하고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단어를 겸류사라 한다. 하나의 단어가 A의 상황에서는 형용사의 어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동사의 특징이 없는 반면, B의 상황에서는 동사의 어법적 특징만 가지고 있을 뿐 형용사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겸류사의 전제조건이라면 X+O가 가능한 X는 사전 상 품사표기에 있어 형용사와 동사가 함께 기재 되어 있어야 하는데 ‘矮, 扁, 遲, 臭, 粗, 淡, 刁, 寬大, 破爛’등의 단어는 동사에 관한 품사표기가 누락되어있다. 반면 형용사와 동사 두 가지의 품사표기가 모두 되어있긴 하지만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목적어를 수반한다 하여도 겸류사로 볼 수 없기에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2. X+O의 構造上的 分類

X가 목적어를 수반할 때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 X+(修飾語)名詞
- 2) X+動態助詞+(數量)名詞
- 3) X+補語+名詞
- 4) X+名詞+數量

19) 王跟國, 〈句法位置對性質形容詞的句法語義特征的制約〉, 山西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38-39쪽 참조.

목적어 수반이 가능한 270개의 X중 1)의 구조에 해당하는 X는 161개로 60%를 차지하고, 2)의 구조에 해당하는 X는 96개로 36%를, 3)의 구조에 해당하는 X는 36개로 13%를, 4)의 구조에 해당하는 X는 42개로 16%를 차지한다. '多'와 같은 X는 '多着些危險'과 '多他一人'과 같이 2)와 4)의 구조에 교차 출현하는데 이와 같은 X를 서로 다른 X로 여겨 수치화 하였다.

첫 번째 구조는 'X+(修飾語)名詞'로 다음과 같다.

飽人, 定神, 短見識, 累人, 苦自己, 暖身子, 驚人, 直腰, 瘦身, 夠標準, 黑大家的錢, 圓自己的夢, 難難他, 安定人心, 端正態度, 純潔思想, 刺激人, 充實內容, 方便群眾, 分散精力, 鞏固國防, 豐富生活, 活躍市場, 健全體制, 麻煩人, 遙遠他, 完善制度, 委屈他, 寬容他, 集中精力, 平衡成績, 平緩局勢, 嚴格食品檢測, 清醒頭腦, 肯定他, 精確數據, 熱鬧他們的眼睛, 破爛許多地方, 壯壯自己的膽氣,

- (5) a. 你全身都濕透了, 去暖身子, 你會感冒的。
 온 몸이 흠뻑 젖었으니 가서 몸을 녹여, 감기 걸릴 수도 있어.
- b. 從沒這麼疲倦, 當導演真不容易, 這麼累人。
 이렇게 피곤해 본적이 없어. 감독이 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다니.
- c. 94年4月至95年3月爲完善制度, 開展信息交流。
 94년 4월부터 95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정보교류를 넓혀야한다.

구조 1)의 X는 대부분 '的'없이 수식이 자유롭지 못한 이음절 성질 형용사로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 즉 X가 직접 명사를 수반하는 구조에서는 수식 보다 서술의 기능이 우선시 된다. '端正'을 語料庫에 대입해본 결과 총 1502개의 예문 중 '端正學風', '端正(工作指導)思想'과 같이 'X+(修飾語)名詞'의 구조를 띄는 문장은 436개로 '的'없이 명사를 수식하는 X는 없었다. 이때의 명사는 수식을 받는 객체가 아니라 목적어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구조는 'X+動態助詞+(數量)名詞'로 다음과 같다.

暗淡了刀光劍影, 淡了交情, 反了天, 順著話題, 富了老百姓, 紅了臉, 寒了心, 慌了神, 幹了眼淚, 刺激了導演, 大著膽子, 冷了心, 鐵了心, 健了身, 狠了心, 淨了手, 皺了皺眉頭, 滿了酒, 緩了腳步, 固定了位置, 光赤著臉, 暖了身子, 疏遠了他, 硬著頭皮, 厚著臉皮, 殘了一條腿, 錯了一道題, 對了兩個字, 松了一口氣, 溫了一雙鞋, 興奮了這地方人, 黑了一分錢, 多著些危險, 黃著一張臉, 晴了一個白天, 陰了一個下午, 熱了幾個饅頭, 集中了一批人才, 壞了一個零件, 活了一棵樹, 急了一身汗

- (6) a. 我鐵了心從最難處開始。
 마음을 다잡고 제일 어려운 것부터 시작했다.
 b. 看到他臉上顯出笑容, 她松了一口氣。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안도했다.
 c. 痛苦著你的痛苦, 快樂著你的快樂。
 너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너의 행복에 즐거워하다.

세 번째는 'X+補語+名詞'구조로 다음과 같다.

安下心來, 靜下心來, 飽不了肚子, 彎下腰, 皺起眉頭, 空出很多座位, 少不了他, 胖開了他的身體, 穩住她, 橫出一條大腿, 埂起脖子, 壯起點膽子來, 豎起大拇指, 彎下腰, 硬住喉頭, 沉不住(得住)氣, 低下頭, 窮盡其義

- (7) a. 村裏的紅白喜事, 總少不了他這個大廚。
 마을의 경조사에 언제나 음식 솜씨가 좋은 이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b. 看到“居易”兩個字, 皺起眉頭打趣說。
 ‘居易’라는 두 글자를 보고 이마를 찌푸리며 조롱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c. 她彎下腰, 揀起一塊小石頭, 把它扔進了樹林裏。
 그녀가 허리를 굽혀 돌 하나를 주워 숲 속으로 던졌다.

구조 2)와 3)의 X는 대부분 공간성이 강한 단음절 성질 형용사로²⁰⁾ ‘胖身體’와

같이 명사를 수반할 때 수식의 기능이 우선시 된다. 하지만 ‘胖開了身體’와 같이 동태조사나 보어를 대동하면 X+O의 구조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X+名詞+數量’구조로 다음과 같다.

輕我五斤, 矮我一頭, 差我一人, 多他一人, 貴我兩元, 快我兩秒, 少我一本, 肥我三寸, 厚我幾頁, 賤我一百元, 近我二裏地, 慢我一步, 淺我二尺, 晚我半小時, 小我兩歲, 遠我二裏地, 早他半小時, 便宜我十元, 遲我一步, 厚我幾頁, 深我十米, 高他一招, 重我五斤, 大我一歲, 長我一寸

- (8) a. 他是學國際貿易的, 畢業後在一家大公司做業務員, 他小我兩歲。
그는 국제무역을 전공했고 졸업 후 대기업 사원이 되었으며 나보다 두 살 어리다.
- b. 他的心計高我一籌。
그의 계략이 나보다 한 수 위다.
- c. 她也屬狗, 大我一輪。
그녀도 개띠인데, 나보다 12살이 더 많다.

구조 4)의 X 또한 뒤에 수량사를 부가한 명사만을 목적어로 수반할 수 있다. 이 구조는 ‘比我大三歲’와 같은 비교문으로 전환 가능하다.

구조 1)~4)의 분석을 통해 270개의 X가 ‘X+(修飾語)名詞, X+動態助詞+(數量)名詞, X+補語+名詞, X+名詞+數量’의 네 가지 유형에 속하며 교차 출현도 가능하다는 것과 X+O구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목적어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만약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면 타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동사와 형용사도 제한 없이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다음에서 목적어의 의미적 분류에 관해 상술하고자 한다.

20) 단음절 성질 형용사의 공간성에 관해 본고의 IV장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21) 朱德熙, 《語法講義》: 「賓語有各種不同的類型, 所以當我們把能不能帶賓語作為劃分動詞和形容詞的時候, 必須把賓語的範圍适当地限制一下。如果我們不加任何限制, 那末不但及物動詞能帶賓語, 不及物動詞和形容詞能帶某些類型的賓語。」(商務印書館,

3. X+O의 意味上的 分類

語義는 품사를 나누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²²⁾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X+O구조에서의 X를 크게 使動과 意動으로 분류한 葉長蔭(1990)²³⁾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에 이를 더 세분화 시킨 朱連芳(2006)²⁴⁾의 ‘使動型, 意動型, 隱對型, 實施賓語型, 對比型, 帶補語型’의 분류방법을 따르거나 李泉(1994)²⁵⁾의 ‘使動, 意動, 自動, 對動, 比較, 存現’의 분류방법을 따른다.

그 밖에 朴正九·馬雯娜(2011)²⁶⁾는 ‘사동목적어’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자동목적어’는 외부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성질이나 상태를 지니게 되지만 모두 ‘제3의 힘’으로 인해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갖게 되고 인위적인 힘과 자연적인 힘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이 둘을 한 부류로 보고, ‘이동목적어’와 ‘대동목적어’를 가진 X는 모두 심리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또한 한 부류로 여겨 ‘사역, 심리, 존현, 비교대상, 가치’로 분류하며 葉長蔭(1990), 朱連芳(2006), 李泉(1994)과는 다른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사동목적어와 자동목적어, 이동목적어와 대동목적어가 갖는 특징에 차이점이 있다고 여기기에 李泉(1994)의 6가지 분류방법을 따르고<표2>를 통해 그 분류 기준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부류는 使動의 의미를 갖는 X로 대개 사람이 주어가 되어 어떠한 일을 실현시킴을 뜻하므로 사역성과 통제 가능성을 갖는다.²⁷⁾ 이 중 ‘餓’와 같은 단어가 [+自主]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繁榮’과 같이 자주성이 약해 외부적인 힘의 개입

2004), 56쪽.

22) 呂叔湘, 《語法研究入門》:「語義特征是範疇性語義成分, 簡稱範疇義, 既是概括性最大的意義, 和語法範疇有關。」(商務印書館, 1999), 324-325쪽.

23) 葉長蔭, 〈“形兼動+賓”結構〉, 《北方論叢(第5期)》, 1990, 55쪽 참조.

24) 朱連芳, 〈形容詞帶賓語的分類〉, 《語文學刊(第14期)》, 2006, 23쪽 참조.

25) 李泉, 〈現代漢語“形+賓”現象考察〉, 《中國人民大學學報(第4期)》, 1994, 18쪽 참조.

26) 朴正九·馬雯娜, 〈사역의미 AO형식의 상표지 부가와 어법특성 연구〉, 《中語中文學(第50輯)》, 2011, 326쪽 참조.

27) 趙玥, 《〈現代漢語詞典(第5版)〉形動兼類詞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53쪽 참조.

을 필요로 하는 단어도 있다. 전자는 ‘[+致使], [+可控], [+自主], [+動態]’ 등의 특징을 가지며 (9)와 같이 ‘使(讓)+名詞+X’와 ‘把+名詞+X’로 전환해 표현할 수 있다.

- (9) a. 有些中小學生把家長給的用餐費都用來玩電子遊戲機，經常餓肚子(讓肚子餓/把肚子餓)。
 몇몇 초·중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이 준 식비를 모두 게임하는데 써 늘 배가 고프다.
- b. 他緊腰帶(使腰帶緊/把腰帶緊)，轉過山道。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길을 돌아갔다.

후자는 ‘[+致使], [-可控], [-自主], [-動態]’의 특징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힘의 개입을 받는다. 이때의 목적어는 모두 구체적인 객체가 아니며([-具體], [-個體]) ‘使(讓)+名詞+X’로 전환할 수 있지만 주동적으로 어떠한 것을 처리할 수 없기에 ‘把+名詞+X’로 전환할 수는 없다. 표기의 편리함을 위해 상술한 내용을 ‘使動①’로 본 내용을 ‘使動②’로 표기한다.

- (10) a. 政府的首要任務是繼續深化改革，繁榮經濟(使經濟繁榮/*把經濟繁榮)，降低失業率，減少貧困，提高國民的生活質量。
 정부의 선결과제는 지속적인 개혁심화, 경제발전, 실업률 저하, 빈곤 감소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 b. 他們的生產經營活動對搞活經濟，增加供應，方便人民生活(讓人民生活方便/*把人民生活方便)等方面是必不可少的。
 그들의 생산경영 활동은 경제 활성화, 공급증가,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 밖에도 ‘端正態度(使態度端正)，突出重點(使重點突出)，純潔隊伍(使隊伍純潔)，穩定情緒(使情緒穩定)，充實內容(使內容充實)，緩和了說話的口氣(使說話的口氣緩和了)，肥了個體戶(讓個體戶肥了)，光著脊梁(讓脊梁光著)，歪著腦袋(讓腦袋歪著)’ 등과 같은 예가 있다.

둘째 부류는 意動의 의미를 갖는 X로 사람의 주관(인정, 확신)에 의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므로 ‘[-致使], [-可控], [+自主], [-動態]’의 의미적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X는 (11)과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목적어를 수반한다. 이 부류는 ‘以+名詞+爲+X’ 혹은 ‘認爲(覺得)+名詞+X’구조로 전환 시킬 수 있으며 ‘重, 稀罕, 奇怪, 可憐, 貴, 寶貴’ 등이 그 예이다.

- (11) a. 如今城裏人都稀罕(城裏人都認爲稀罕)野菜和粗糧。
도시 사람은 요즘 모두 나물과 잡곡을 귀하게 여긴다.
b. 造成這一現象的根本原因是中國社會普遍存在的‘重男輕女(認爲男的重要, 女的不重要)’的社會性別觀念。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사회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남존여비 사상 때문이다.

셋째 부류는 X+O구조를 ‘對+名詞+X’로 전환 시킬 수 있는데 이때의 형용사는 ‘二價形容詞’²⁸⁾로 동사와의 검류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다. 대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며 (12)와 같이 ‘[-致使], [+可控], [+自主], [-動態]’의 특징을 갖는다.

- (12) a. 我是熱心教育事業(對教育事業熱心)的人。
나는 교육 사업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b. 不要冷淡了他(對他冷淡了)。
그에게 냉담하게 대할 필요 없다.

이 밖에도 ‘寬大俘虜(對俘虜寬大), 淡薄名利(對名利淡薄), 你要坦白自己的罪行(你要對自己的罪行坦白), 厚了張三, 薄了李四(對張三厚了, 對李四薄了), 分明是非(對是非分明)’ 등과 같은 예가 있다.

넷째 부류는 自動의 의미를 갖는 X로 사람에 의해 재촉 받거나 인정받아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13)과 같이 ‘[-致使], [-可控], [-自主], [-動態]’의 특징을 가지며 목적

28) 陸儉明, 《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 「介詞結構“對~”所能修飾的形容詞正是二價形容詞。」(北京大學出版社, 2005), 54쪽.

어와 주어를 도치시켜 '名詞+X'로 전환할 수 있다.

- (13) a. 我爸爸不到四十就禿了頭(頭禿了)。
우리 아빠는 마흔이 되기도 전에 머리가 벗겨졌다.
b. 他紅著臉(臉紅著)低下頭說:“你不理解我!”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넌 내 마음을 몰라!”

이 밖에도 '花了眼(眼花了), 爛了一筐桃子(一筐桃子爛了), 啞了嗓子(嗓子啞了), 瞎了一只眼(一只眼瞎了)' 등과 같은 예가 있다.

다섯 번째 부류는 비교대상을 수반하는 경우로 (14)와 같이 'X+名詞+數量成分, X(了)+數量成分+名詞'의 구조로 '比+名詞+X+數量成分, 比+原來+X(了)+數量成分+名詞'로 전환 시킬 수 있으며 '[-致使], [-可控], [-自主], [-動態]'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4) a. 小王只快了小馬二秒鐘(小王只比小馬快了二秒鐘)。
小王은 小馬보다 고작 2초 빠르다.
b. 多了三個人(比原來多了三個人)。세 사람이 더 많다.

이 밖에도 '哥哥大我五歲(哥哥比我大五歲), 妹妹小我三歲(妹妹比我小三歲), 高他一著(比他高一著), 矮人一截(比別人矮一截), 少了兩本書(比原來少了兩本書)' 등과 같은 예가 있다.

여섯 번째 부류는 X가 '존재, 출현, 소실, 변화'의 의미를 가지며 (15)와 같이 '[-致使], [-可控], [-自主], [+動態]'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5) a. 山下橫著一條坑坑窪窪的沙土公路。
산 아래 울퉁불퉁한 모래 길을 가로지르다.
b. 她的臉上浮泛出一絲笑意。
그녀의 얼굴에 한 가닥 웃음기가 어렸다.

상술한 여섯 부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使動①	使動②	意動	對動	自動	比較	存現
[±致使]	+	+	-	-	-	-	-
[±可控]	+	-	-	+	-	-	-
[±外力]	-	+	-	-	-	-	-
[±自主]	+	-	+	+	-	-	-
[±動態]	+	-	-	-	-	-	+
[±比較]	-	-	-	-	-	+	-
[±主體(人)]	+	-	+	+	-	+	+

〈표2〉

自動과 存現은 교차되는 특징이 많아 이 둘을 하나의 범주로 여기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의미적 차이를 보이기에 이를 두 부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自動의 의미를 지니는 ‘紅’은 ‘紅了幾個蘋果’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자연적 요소에 의한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存現의 의미를 지니는 ‘活躍’은 ‘密林中活躍著一支小分隊’와 같은 문장에서처럼 객관적인 요소에 의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270개의 X+O구조를 성립시키는 X를 그 의미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해 본 결과를 〈표3〉으로 정리한 결과 ‘使動(72.2%)>自動(7.3%)>對動(6.6%)>意動(5.5%)>存現(4.4%)>比較(4.0%)’로 使動의 의미를 갖는 X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使動(①~②)	意動	對動	自動	比較	存現
단음절	78	6	7	8	5	9
이음절	116	9	11	12	6	3
합계(%)	194(72.2%)	15(5.5%)	18(6.6%)	20(7.3%)	11(4.0%)	12(4.4%)

〈표3〉

IV. X+O의 動因

운동이란 사물의 변화 혹은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모든 사물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기에 운동과 사물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²⁹⁾ 범주에서의 '사물, 운동, 상태'를 언어학적 범주로 옮기면 '명사, 동사, 형용사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세 개념은 서로 연결돼 있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David Lee(2003)는 이 세 개념을 심리적으로 형성된 주관적인 '형상'에 근거해 구분 지어야 한다고 했으며³⁰⁾ 呂叔湘(1978)³¹⁾ 또한 "臉紅'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만일 빨갱게 변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紅了臉'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이때의 '紅'은 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잃고 동사성을 띄며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상술한 내용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 밖에도 미국의 언어학자 Ross는 영어의 품사경계의 모호함과 연속성에 관해 언급하며 '名詞>形容詞性的名詞>介詞>形容詞>被動式形式>完成式形式>現在分詞>動詞'와 같은 표지를 제시하였고³²⁾, 張伯江³³⁾ 또한(표4)를 제시하며 서로 근접해 있는 품사끼리는 어법적 특징이 비슷하고 멀어질수록 차이점이 명확해 지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간성이 강해지며 왼쪽으로 갈수록 시간성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29) 김진우 《인지언어학의 이해》: 「인지언어학이란 인간 마음의 본질,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언어, 몸과 마음, 문화'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언어이론이다. 언어를 보다 더 일반적인 인지능력 내에 위치시키는 언어 연구의 접근법이다. 인지언어학은 언어를 아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며,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인지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한국문화사, 1999), 23쪽.

30) David Lee 저,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2003, 13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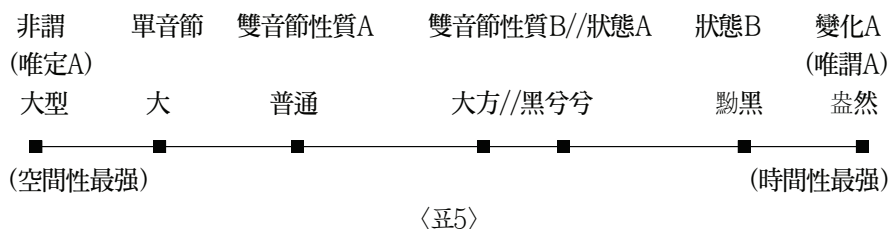
31)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1979.

32) 趙珣, 《〈現代漢語詞典(第5版)〉形動兼類詞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28쪽 참조.

33) 張伯江, 〈詞類活用的功能解釋〉, 《中國語文(第5期)》, 1994.



더 나아가(표5)³⁴⁾와 같이 한 품사 내부에서도 어법적 기능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측으로 갈수록 공간성이 강해지며 명사가 뒤에 위치하면 우선 定語로 이해해야 하는 반면 우측으로 갈수록 시간성이 강해지고 명사가 뒤에 위치하면 우선 謂語로 이해해야 한다. 즉 우측에 위치한 형용사일수록 동사와의 겸류를 이루어 목적어 수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 어휘가 다른 품사의 어법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면(표4)와 같이 품사의 경계가 모호해 질 것이다. 이렇듯 품사간의 경계에 위치한 어휘들이 겸류사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겸류사의 종류나 특성에 관한 정확한 학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법 설명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통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은 선대의 학자들에서 현재의 수많은 학자들까지 지속되고 있다.

34) 沈家煊, 《不對稱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1999.

V. 나오면서

중국어는 인도유럽어와 달리 형식표지와 형태변화가 없고, '다품사'³⁵⁾와 같은 어휘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한 어휘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성분으로 쓰였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어의 품사구분은 의미나 형태변화가 아니라 어법적 기능에 근거해야 한다.³⁶⁾ 하지만 어법적 기능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完成任務'와 같은 문장을 述賓結構로 여겨야 하는지 偏正結構로 여겨야 하는지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사구조에서의 어법관계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형용사의 통사구조와 그 유형에 관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現代漢語詞典(第5版)》에 수록된 2600개의 형용사 중 단음절 형용사는 312개이며, 이들 중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단음절 X는 152개이고, 2282개의 이음절 형용사중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이음절 X는 118개로 총 270개이다. 즉 10.4%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X+O구조를 성립시킨다. 단음절과 이음절 X는 모두 4가지(X+(修飾語)名詞, X+動態助詞+(數量)名詞, X+補語+名詞, X+名詞+數量)의 형식에 속하고, 의미를 기준으로 6가지(使動, 意動, 自動, 對動, 比較, 存現)로 분류 할 수 있다. 즉 4가지의 유형에 속하고, 6가지의 의미를 가져야지만 X+O구조가 성립된다.

학습자들의 중국어 학습에 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정확한 학습 방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기에 본고에서 서술한 X+O구조 외에도 다양한 검류사³⁷⁾들의 통사적 구조에 관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정

35) 중국어 어휘는 크게 '다품사, 다기능, 다특성'의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품사'란 하나의 어휘가 하나의 품사를 갖지 않고 여러 개의 품사를 갖는 것을 뜻하고, '다기능'이란 하나의 어휘가 하나의 품사 내에서 여러 가지 뜻을 지니는 것을 뜻하며, '다특성'이란 '走', '去'와 같이 표면적인 의미는 같지만 그 쓰임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있는 어휘를 뜻한다.

36) 郭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10, 11쪽 참조.

37) 郭銳(2002)의 분류에 따르면 검류사에는 '動名兼類詞, 形名兼類詞, 形動兼類詞, 名量兼類' 등이 있다.

립해 학습자들의 학습 장애나 혼란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 呂叔湘, 《現代中國語文法》, 商務印書館, 1942.
- 陸志韋, 《北京話單音詞詞彙》, 人民出版社, 1951.
- 陳望道, 《文法簡論》, 上海教育出版社, 1978.
-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1979.
- 趙元任, 《漢語口語語法》, 商務印書館, 1979.
- 範 曉, 〈關於形容詞帶賓語問題〉, 《漢語學習(第5期)》, 1983.
- 葉長蔭, 〈試論能謂形容詞〉, 《北方論叢》, 1983.
- 朱德熙, 《語法答問》, 商務印書館, 1985.
- 張 靜, 《漢語語法問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 劉月華,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教育書株式會社, 1988.
- 葉長蔭, 〈“形兼動+賓”結構〉, 《北方論叢(第5期)》, 1990.
- 李 泉, 〈現代漢語“形+賓”現象考察〉, 《中國人民大學學報第(第4期)》, 1994.
- 張伯江, 〈詞類活用的功能解釋〉, 《中國語文(第5期)》, 1994.
- 胡明揚, 〈兼類問題〉, 《詞類問題考察》,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 김진우, 《인지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9.
- 沈家煊, 《不對稱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1999.
-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 石毓智, 《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1.
- 郭 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02.
- 王啓龍, 《現代漢語形容詞計量研究》,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3.
- David Lee 저,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2003.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2004.
- 陸儉明, 《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 北京大學出版社, 2005.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
- 朱連芳, 〈形容詞帶賓語的分類〉, 《語文學刊(第14期)》, 2006.
- 王跟國, 〈句法位置對性質形容詞的句法語義特征的制約〉, 山西大學, 學碩士學位論文, 2006.
- 黃伯榮·廖序東, 《現代漢語》, 北京高等教育出版社, 2007.
- 麻彩霞, 〈名詞、形容詞的活用與名詞、形容詞的超常搭配〉, 《語文學刊(2008卷9期)》,

2008.

劉光婷, 〈現代漢語形容詞帶賓語情況考察〉,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吳平, 《漢語特殊句式的事件語義分析与計算》,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趙玥, 《〈現代漢語詞典(第5版)〉形動兼類詞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郭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10.

朴正九·馬雯娜, 〈사역의미 AO형식의 상표지 부가와 어법특성 연구〉, 《中語中文學(第50輯)》, 2011.

【中文提要】

本文以現代漢語形容詞帶賓語情況作為考察對象, 在總結和借鑒前人研究成果的基礎上, 通過對《現代漢語詞典(第5版)》收錄的2600個相關形容詞的考察, 找出270個(單音節: 152個, 雙音節: 118個)可帶賓形容詞, 並得出結論: 能帶賓語是形容詞的非典型功能, 形容詞帶賓語後可以看作兼類。文章以“音節、構造、意味”三個角度對可帶賓形容詞進行統計, 重點討論其構造分類, 涉及“X+(修飾語)名詞”; “X+動態助詞+(數量)名詞”; “X+補語+名詞”; “X+名詞+數量”等四種類型。在此基礎上, 粗略地得出了形容詞帶賓語的條件並進一步探討了形容詞所帶賓語的語義類型(使動、自動、對動、意動、存現、比較)及形容詞帶賓語的動因。

【主題語】

形+賓, 形動兼類詞, 形容詞, 動詞, 構造分類, 語義類型

투고일: 2012. 7. 15 / 심사일: 2012. 7. 20~8. 5 / 게재확정일: 2012. 8. 10